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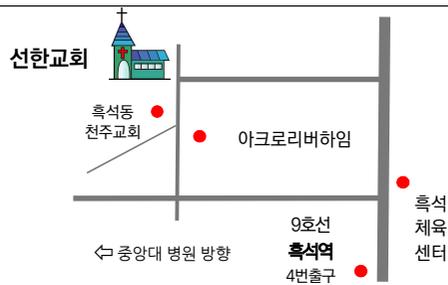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b>주 일 예 배</b>	1부 주일 오전 9:30	<b>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b>	
	2부 주일 오전 11:00		
<b>오 후 예 배</b>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b>중 국 어 예 배</b>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b>수 요 예 배</b>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b>금 요 기 도 회</b>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b>새 벽 예 배</b>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b>셀 가족 모임</b>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b>사 역 자</b>	담임목사 임 춘 배	<b>국 내 선 교 사</b>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b>해 외 선 교 사</b>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진만	<b>협 력 교 회</b>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b>은 퇴 장 로</b>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b>장 로</b>	박 영 근 (집사장)	<b>관 리 장 로</b>	손 석 규
	유 신 응, 조 윤 익	<b>500/50 교회</b>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사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여호와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 1:7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64장 (통일찬송가 13장)
교 독 문	교독문 18 (시편 31편)
찬 양 과 경 배	442장 (통일찬송가 499장)
대 표 기 도	유신웅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5장 3 ~ 7절
설 교	긍휼히 여기는자의 복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성도의 생활자세 (롬13:8-14)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안내**

1. 주일예배: 2부(9시30분/11시)로 나누어 드림 (11시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림 (영상제공하지 않음)
3. 각종행사: 체육예배를 포함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 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 [보충] ※일독 기념품 증정
4. 경건서적읽기
- 5.부서별 카톡 성경공부
6. 성경암송(20구절): 시험(5/31일)

**3.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중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완치와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회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5. 코로나 19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6. 코로나 19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통 412)

본문 : 창세기 42장 29절~43장 14절

말씀 :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갔던 아들들이 긴 여행에서 돌아와 그간 일들을 아버지에게 들려주자 야곱은 맥이 풀렸습니다. 시므온이 이집트에 볼모로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 외에는 어떤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구덩이에 던져진 시므온을 구하려면 막내 베나민을 이집트로 데려가야 한다는 말을 듣자 야곱은 분노하고 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자식을 잃을 수 없다.” 그런데 야곱의 이 말에서 우리는 이상한 뉘앙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나민을 ‘내 아들’이라 칭하면서 다른 아들들을 ‘너희’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아들이 베나민 하나뿐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로 향했던 야곱의 왜곡된 편애는 요셉을 잃고 난 이후 베나민에게 쏟아 있었었습니다.

자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난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과 대면했던’ 믿음의 사람 야곱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에게 ‘해가 미쳤다’는 관점으로만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닥친 고난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들들을 다시 이집트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말합니다. “동생을 데려가야 또 다른 동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난감한 현실 앞에서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는 어찌자고 또 다른 동생이 있다고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해 버렸느냐. 거짓말로 돌려댔어가지!” 이 순간 야곱은 자신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짓의 사람이라는 천성을 드러냅니다. 본문의 배경은 야곱(속이는 자)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이후였지만 야곱의 본성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나민을 보내면서 이집트 총리에게 줄 선물도 함께 보냅니다. 옛날 자신이 형 에서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용했던 그 방식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야곱은 이를 반복하며 하나님께 그 어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 모습은 하나님보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연약한 인간의 처세술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보낸 선물은 요셉에게 협상 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부와 회피, 책임 전가, 협상과 타협, 체념. 야곱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목

공홀히 여기는자의 복 (마5:3-7)

서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행하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 1. 공홀히 여기는자

- (1) 앞의 네가지 복은 하나님의 앞에서의 우리의 내적 자세를 나타냄
- (2) 공홀의 복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다른 사람과의 관련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줌
- (3) 공홀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의 의미로, 측은히 여김과 행동이 합쳐진 것(눅10:36,37)

본론

- (4) 공홀히 여김을 받은 자는 공홀히 여김이 마땅함(마18:32,33,35)
- (5) 공홀히 여기는자의 복: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7절)

#### 2. 교훈

- (1) 나는 공홀히 여김을 받은자임을 알고 있는가?
- (2) 나에게 공홀히 여김이 있는가?
- (3) 공홀히 여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결론

공홀히 여기는 자가 되어 공홀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문	신명기 23:15-25
	<p>종이 주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을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그 종을 종래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면 더욱 심각한 사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종이 선택하는 곳에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보호의 혜택을 받는 것은 도망친 모든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공정한 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친 노예에만 해당될 것입니다. 이 법 역시 공흠을 베풀어 억울한 일을 당한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 사랑은 자유인만이 아닌 노예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했던 것입니다.</p> <p>한편 율법은 이스라엘 사회에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창기와 미동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성적 타락의 매개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 돈은 어떤 서원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도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단호하게 성적인 범죄를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p> <p>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행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서원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이 더딜 때에 반드시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p>
묵상질문	1. 일상의 세세한 규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과 기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새 463/통 518)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크리스천 공직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김하중 장로님이 「젊은 크리스천들에게」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길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히 하고, 둘째,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며, 셋째, 항상 자신이 져야 하는 조그만 십자가라도 지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법이 만연한 세상에 기에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거짓과 불법을 행하는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불의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협박을 당해도 굴하지 않는 것, 눈 딱 감고 이것만 하면 승진시켜 준다고 유혹해도 거부하는 것, 세상 기준으로는 해도 좋다고 말하는 편법을 과감히 거부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떠나 빛이 되려고 노력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그분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또한 크리스천은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 사랑의 중보자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 부어 주십니다. 사랑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용서인데,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p> <p>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떠한가요?</p>
말씀 나누기	신명기 23:15-25
묵상포인트	<p>하나님 백성의 대인 관계와 경제 활동에는 하나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위기에 처한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합당하게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로는 대출과 이자가 합당한 제도지만, 성도는 공평한 형제가 생존을 목적으로 돈을 빌릴 때 이를 자신의 이자 소득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 간에는 이익 추구보다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꿈을 꾸며 선한 사업에 힘쓰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p>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주인을 피해 도망 나온 종에 관한 규례 및 창기·납창에 관한 규례는 각각 무엇인가요?(15~18절)
적용하기	학대나 멸시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정당한 소득인가요 불의한 소득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제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거룩함을 깊이 새겨 주소서.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게 하소서. 형제의 공평함을 돌아보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 규례 (5)

날짜 : 5월 29일

찬양	찬송가 200장 달고 요요한 그 말씀
본문	신명기 25:11-19
	<p>어떤 여인이 곤경에 처한 남편을 구하기 위해 다른 남자의 생식기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했을 경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손을 짚어 버리라고 명하는 율법입니다. 이러한 가혹해 보이는 형벌은 단순히 정속하지 못한 여인의 처벌이라는 차원 뿐만 아니라 남성의 생식기가 가지는 특성과 의미를 고려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신 23:1에서 신남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율법 조항이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남성의 생식기는 자손을 잇는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기관이므로 생식 기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용서하지 말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p> <p>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들은 저울을 속임으로써 상거래를 불공정하게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도량형은 이스라엘 사회가 공의와 질서로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을 극도의 혼란과 불신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저울 추를 속이지 말라고 명하고 정직한 상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p> <p>하나님께서서는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 그 곳에서 모든 대적을 소멸시키고 안식을 주실 때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쳐부수어야 했으나 사사 시대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굴복하기도 했습니다(참조, 삿3:13). 그러나 다윗 왕 때에 부분적으로 아말렉을 제압하였고 후에 시므온 지파의 500명 용사가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켰습니다(참조, 대상4:42-43).</p>
묵상질문	1.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 규례 (2)

날짜 : 5월 26일

찬양	찬송가 522장 원일인가 내 형제여
본문	신명기 24:1-13
	<p>아내에 대하여 수치 되는 일 즉 부정을 발견하거나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인을 내보내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분명하게 언급하는 유일한 이혼의 사유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계속하여 그 이혼 당한 여인에 대한 지위와 아울러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혼 당한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 당한 여인은 그렇게 재가할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이혼 당하거나 그 남편이 죽었을 때 다시금 전남편과 결합할 수 없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혼이 성적 방종의 방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당시 가나안 땅에서 그러한 형태의 복잡한 혼인 관계를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러한 범죄로부터 벗어나서 정결한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사람을 후려다가 부리거나 파는 유괴범 혹은 인신 매매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살인범에 대한 처벌과 동일하여 죽음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유괴범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보아서 사람을 후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인격과 삶을 전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p> <p>문둥병자들에게 대해서도 율법은 이미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참조, 레 13:1-레14:57). 모세는 그 규례를 유념하면서 문둥병자에 대하여 예외 없이 규정대로 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문둥병자는 반드시 격리 수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진 밖에 격리 수용되도록 명령이 내려졌던 것은 이 규정에 절대 예외가 없었던 것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한다는 영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으며, 율법의 적용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p>
묵상질문	1.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본문	신명기 24:14-22
	<p>하루 벌어서 하루를 생활하는 날품팔이 일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지기 전 그날에 품삯을 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만약 그 가난하고 무력한 품꾼이 주인의 인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죄가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며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유함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더욱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p> <p>율법은 또한 객이나 고아와 과부에 대한 보호를 명하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 반복되는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객이었다가 구원받은 중요한 사실을 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 사건 이전에 겪었던 애굽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기억하며 보호의 대상들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마련입니다. 이같이 약자들에 대한 끊임 없는 배려는 율법의 지속적인 관심사였습니다.</p> <p>전장에 이어 본장에서도 율법은 추수기에 가난한 자들이 곡식이나 과실을 얻어 기본적으로나마 추수기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배려야말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성을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내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봄을 통하여 자신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수준을 외롭고 지친 영혼을 가진 사람을 향한 자비의 손길로 확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늘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성도들이나 세상의 구제와 관심의 대상들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p>
묵상질문	1. 공동체 안의 약한 자들에게 나는 무엇을 나누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본문	신명기 25:1-10
	<p>특히 이 부분에서 모세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형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밝혀지면 40대 이내로 태형을 가하도록 명하는 규례가 기록되었습니다.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한 것은 아마도 그 이상은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율법에 따라 혹시 숫자를 잘못 세어 40대를 넘게 때릴 수 있을까 하여 40에 하나 감한 태형을 가장 큰 태형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 맞은 때도 바로 이 39대의 태형이었던 것입니다.</p> <p>타작할 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세세한 내용도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타작 방법은 널판지에 구멍을 많이 뚫고 그 곳에 날카로운 돌이나 쇠붙이를 박은 후 그것을 소나 나귀에게 끌고 다니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아서 소가 일하면서 먹을 만큼 먹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규례는 단순히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후에 사도 바울이 적용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어 생활하도록 한다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역 자들을 위한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p> <p>계대 결혼 혹은 수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한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형제 된 의무로서 죽은 형제의 과부 된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고대 근동에서 유행하던 제도로서 모세의 율법에서 성문화되고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죽은 형제의 대를 이음으로써 가문을 지파 내에서 보존하고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행하지 않으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수치가 되게 함으로써 이 겁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법 정신은 가문을 보호하고 혈통을 중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신앙의 이질화 혹은 혼혈을 막는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p>
묵상질문	1. 사람들에게 나를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이라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기도	